



소리와 공간 탐색... 광주비엔날레에 담아내다

캐나다 파빌리온에서 전시 중인 김철아 작가의 '영혼의 모양'은 신화 등에 기반한 다양한 공간을 탐구한 결과물이다.

제15회 광주비엔날레가 7일 개막해 오는 12월 1일까지 주 전시관인 용봉동 비엔날레전시관을 비롯해 파빌리온 프로젝트가 열리는 양림동 등 광주 전역에서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국외 우수 문화예술기관이 참여하는 파빌리온에 31개 국가·문화기관이 함께해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른다.

6일 프레스 오픈, 7일 개막을 앞두고 용봉동 비엔날레전시관은 막바지 손질에 준비에 한창이었다. 전시에 참여하는 각국 72명 작가들은 개인 거주지부터 행성 지구까지 주위의 비가시적으로 편제하는 생명체들과 감응하며 다양한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낼 예정이다.

이번 비엔날레 주제인 '판소리-모두의 울림'은 인간, 기계, 동물, 영혼, 유기 생명체 모두가 공유하는 우리의 '관계적 공간'을 재사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니콜라 부리오 예술감독은 "동시대 핫이슈인 환경, 생태, 기후 등에 대해 작업해 온 작가들의 개성적인 작품이 전시된다"며 "광주비엔날레가 다양한 경계를 넘어 현대미술의 향연을 펼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여 작가의 면면도 다양하다. 인도 작가 아몰 K

. 판턴은 인도 사회의 문제인 계급 문제를 다루고 최하층 작가는 공간의 변화, 산업화로 인해 공간의 변모 등을 풀어낸다. 중국 작가 쟡 신하오는 영상작업 '층위와 표식'을 모티브로 한 작품을 선보이며 판화가로 회화, 사진 작업까지 폭넓은 작업을 해온 존 도웰은 70-80년대 제작한 종이에 그린 회화와 드로잉 시리즈를 선보인다.

주 전시관인 용봉동 비엔날레전시관에서는 기후 변화 등 전 지구적인 현안들인 공간의 문제를 탐구한다. 전시공간은 '부딪힘소리' (라르센 효과), '겹침소리' (다성음악 혹은 폴리포니), '처음소리(프리모디얼 사운드)' 등 3개 섹션으로 구성된다. 공간(판)이라는 의제를 소리(사운드)로 공명을 시도해 서사와 전시를 감상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라르센 효과는 두 음향 방출 기기 사이에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전시실 1, 2) 섹션은 피드백 효과를 다루며 밀도 높은 공간의 음성 이미지를 보여준다. 인간 활동이 주가 되는 세상에서 사람간, 종간 관계는 더욱 고밀도화 된다.

겹침 소리(전시실 3) 섹션에는 여러 초점을 가진

다중적 세계관에 주목하는 작가들 작품이 펼쳐진다. 처음 소리(전시실 4, 5) 섹션에서는 작가들이 비인간적 세계와 '두 종류의 방대함'인 본자와 우주를 탐구한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최대 규모인 31개 국가·문화기관의 파빌리온 전시가 운영된다는 점이다. 국가관 이외에도 다양한 기관과 기획자, 기관과 국가의 콜라보레이션 등이 예정돼 있다.

또한 사상 첫 '광주 정신'과 방향을 조망하는 '광주관'도 개관한다. 광주 파빌리온(감독 안미희)은 '무등: 고요한 긴장'을 주제로 한 '광주관'을 광주 시립미술관 2-3층에서 선보인다. 불평등과 이기심이 만연한 국제정세에서 '무등정신'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나침반 역할을 상징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막을 앞두고 지난 4일 양림미술관에서 열린 캐나다 파빌리온은 '집'을 모티브로 독특하면서도 이색적인 작품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전시실에서는 광주 기반의 작가들과 캐나다 이누이트 작가들이 쌓아온 관계를 기록한 협업의 결과물을 볼 수 있었다. 주한 캐나다대사관과 이강하기림사협회가 협력했다.

'판소리-모두의 울림' 주제...내일 개막 86일간의 대장정 용봉동 전시관·양림동 파빌리온 등 광주 전역서 펼쳐져 세계 31개국 72명 작가들, 다양한 공간에 대한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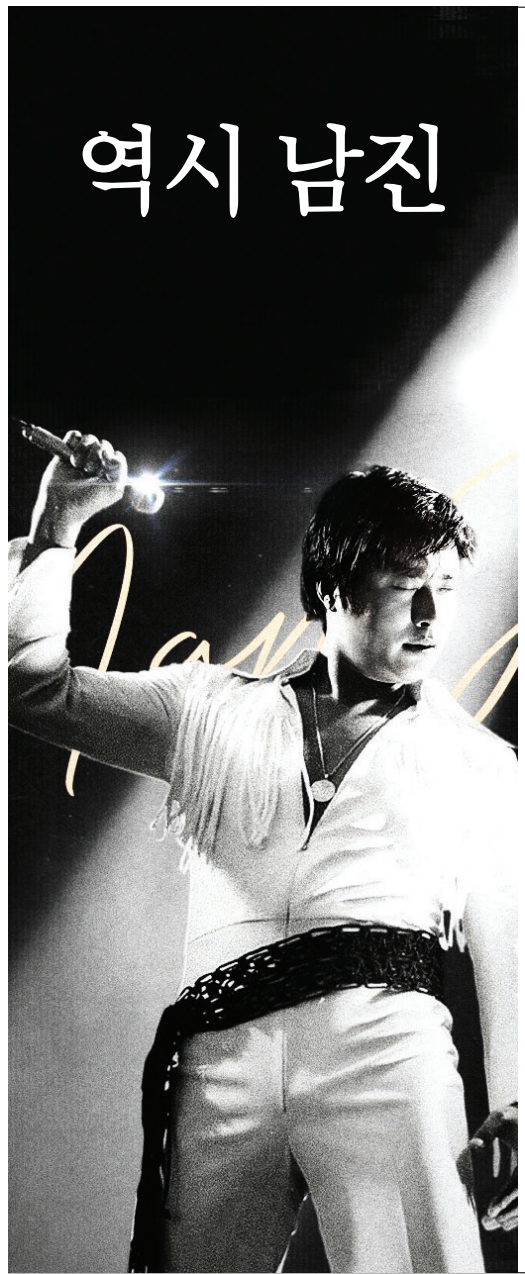
이선 이강미술관 학예실장과 캐나다 윌리엄 허프만이 공동 기획한 '집 그리고 또 다른 장소들'은 신화 등을 기반으로 설치, 조각, 회화, 영상 등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였다. 한국 작가로 김철아, 이조흠, 주세웅 등이 참여했으며 캐나다 작가로 카버바우 매누미, 슈비나이 아슈나 등이 참여했다.

한편 박양우 대표이사는 "86일간의 비엔날레 대장정이 시작되면 광주 전역에서 세계적인 미술 행사들이 펼쳐질 것"이라며 "특히 이번 파빌리온에 31개국이 참여한 것은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중심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제15회광주비엔날레가 7일 개막해 12월 1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주 전시관을 비롯해 광주 전역에서 펼쳐진다.



영화 '오빠 남진' 개봉 첫날부터 인기몰이 팬덤문화 원조...광주 등 전국 극장가 상영

지난 4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오빠, 남진'이 개봉 첫날에만 누적 관객수 1500여명을 기록하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5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입장권 통합전산망(KOBIS)에 따르면 '오빠, 남진' (감독 정인성)은 다큐 영화에도 불구하고, 개봉 첫날에만 1429명이 관람했다. 현재 전국 극장가를 비롯해 롯데시네마 광주점(백화점), 점점점, 수완점, 충장로점에서 상영 중이다.

이번 영화는 국내 팬덤 문화의 원조격이자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목포 출신 가수 남진의 삶과 공연 등을 담았다. 내년이면 데뷔만 60주년이지만 남진은 여전히 한국 대중음악 '아이콘'으로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1965년 '서울 플레이보이'로 데뷔한 남진은 '남과 함께', '동지'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국민 가수 반열에 올랐다. 총 60여 편 영화에 출연하는 등 배우로서도 성공가도를 달렸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 80년대 신군부 등장과 함께 정치적 탄압을 받은 그는 잠시 미국으로 떠나기도 했다.

영화는 베트남전 참전을 비롯해 현대사의 굴곡, 개인사적인 삶 등을 다각도로 그렸다. 특히 히트곡 '빈 잔'을 발표했던 비화 등도 담겨 있어 지난 시절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

작품은 광주, 서울, 부산 등 전국에서 펼쳤던 콘서트 현장 실황 영상도 생생하게 담아 과거와 현재의 남진을 교차한다. 어쿠스틱 버전으로 재해석한 '가슴 아프게', '남과 함께' 등 대표곡은 기성세대들에게 아련한 향수를 떠올리게 한다.

1967년 발매작 '마음이 고와야지'를 배경으로 한 젊은 시절 풋풋했던 '오빠 남진'도 스크린에 담겨 있다. 70년대 퇴폐적 풍조와 80년대 억압적 분위기를 거처오며 대중과 호흡해 온 가수로서의 여정은 한국 대중음악 100년사와 맞물린다. 총 84분 러닝타임(12세 이상 관람가)에는 팬들을 위해 마련한 한정 영상도 포함돼 있다.

남진의 음악 인생과 함께했던 설운도, 장민호, 박현빈, 장윤정 등 선배 가수들의 인터뷰도 보는 맛을 더한다. 진도 출신 송기인은 인터뷰에서 "(남진은) 노래에 있어서도 멋이 흐르는 것 같다"며 존경심을 내비쳤다.

한편 지난 6월에는 음악 인생을 책으로 엮은 '오빠, 남진' (상상출판)이 발간돼 이목을 끌었다. 또한 고흥군은 지난해 트로트 가수 가운데 전국 최초로 남진 이름을 내건 '남진 트로트 기념관' (영남면 우천리 145-11)을 건립한 바 있다. /최유빈 기자 rubi@kwangju.co.kr



'아시아 예술정원' 일환으로 조성된 '하늘다리' 모습. <광주시립미술관 제공>

광주시립미술관, 중외근린공원 '아시아 예술정원' 7일 개장

'문화정원', '생태예술놀이터', '하늘다리' 등 문화예술 공간들로 구성된 '아시아 예술정원'이 오는 7일 개장한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김준기)은 중외근린공원 5만6200㎡ 부지에 '아시아 예술정원'을 조성했다고 5일 밝혔다. 지역 대표 문화시설인 미술관, 박물관, 비엔날레관, 예술의전당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됐으며 총사업비 190억 원이 투입, 4년 만에 완공됐다.

먼저 아시아 경관을 테마로 만들어진 '미술관 옆 문화정원'은 중앙아시아 초지 경관을 모티브 삼은 그라스 가든, 서아시아 사막을 재현한 드라이 가든, 동남아 우림을 표현한 웨이드 가든, 남아시아의 고산암석경관인 락가든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에

는 수목 1만2000여 주를 비롯해 지피류 2만6000여 본이 식재됐다. 방문객들 심터 역할을 하는 파빌리온(3개소) 및 21m 규모의 스탠드 등 예술 작품도 함께 설치됐다.

1981년 개장한 어린이대공원(유원시설)은 '생태예술놀이터'로 탈바꿈했다. '도롱뇽 물놀이장'을 비롯해 9m 높이의 '상징모험놀이대', '꿀벌모래조항놀이대' 등 다양한 놀이시설이 내부에 자리한다.

중의산으로 가로막혀 있던 광주예술의전당과 광주시립미술관은 공중조성로인 '하늘다리'로 연결됐다. 교통 약자 등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KSA 한국표준협회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